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저작권은 평가원에게 있습니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 공통 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공통과목** 1~12쪽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13~16쪽
 - 언어와 매체 17~20쪽

※ 시험이 시작될 때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목차

[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01] 2007학년도 수능: 2P
- [02] 2008학년도 6월: 4P
- [03] 2013학년도 6월: 6P
- [04] 2013학년도 수능: 8P
- [05] 2016학년도 9월 A형: 10P
- [06] 2019학년도 6월: 12P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7.수능]

(가) [중모리] 창황분주 도망을 갈 제 새만 푸루루루루 날아
나도 북병인가 의심하고, 낙엽만 퍼뜩 떨어져도 추병인가
의심하여, 얼어지고 자빠지며 오림산 험한 산을 반생반사
도망을 간다.

(나) [아니리] 조조(曹操) 가다 목을 움쭙움쭙하니 정욱(程昱)
이 여짜오되,

“승상님 무게 많은 중에, 말 허리에 목을 어찌 그리 움치
시나이까?”

“야야, 화살이 귀에서 앵앵하며 칼날이 눈에서 번뜻번뜻
하는구나.”

“이제는 아무 것도 없사오니 목을 늘여 사면을 살펴보옵
소서.”

“야야, 진정으로 조용하냐?”

조조가 목을 막 늘여 좌우 산천을 살펴보려 할 제, 의외에
말 굽통 머리에서 메추리 표루루루 하고 날아 나니 조조 깜
짝 놀라,

“아이고 정욱아, 내 목 떨어졌다. 목 있나 봐라.”

“눈치 밝소. 조그만한 메추리를 보고 놀랄진대 ㉠ 큰 장끼
를 보았으면 기절할 뻔하였소그려.”

조조 속없이,

“야 그게 메추리냐? 그놈 비록 자그마한 놈이지만 냄비
에다 물 붓고 갖은 양념 하여 보글보글 볶아 놓으면 술안
주 몇 점 참 맛있느니라만.”

“입맛은 이 통에라도 안 변하였소그려.”

조조가 좌우 산천을 살펴보니,

(다) [중모리] 산천은 험준하고 수목은 총잡한데, 골짜기 눈
썩이고 봉우리 바람 칠 제, 화초 목실 없었으니 앵무 원앙
이 그쳤는데 새가 어이 올라마는, 적벽 싸움에 죽은 군사
원조(怨鳥)라는 새가 되어 조 승상을 원망하여 지지거려 우
더니라. 나무 나무 끝끝트리 앉아 우는 각 새 소리. 도탄에
싸인 군사, 고향 이별이 몇 해런고. 귀축도 귀축도 붙여귀
라, 슬피 우는 저 초혼조. 여산 군량이 소진하여 춘비 노략
한때로구나, 소텡 소텡 저 흥년새. 백만 군사를 자랑터니
금일 패전이 어인 일고, 입삐죽 입삐죽 저 삐죽새. 자칭 영
웅 간곳없고 도망할 길을 피로만 낸다, 피꼬리 수리루리루
저 피꼬리. 들판 대로를 마다하고 심산 숲 속에 고리각 까
옥 저 까마귀. 가련타 주린 장졸 냉병인들 아니 들랴, 병에
좋다고 쭈국 쭈국. (중략)

㉡ 처량하구나 각 새 소리. 조조가 듣더니 탄식한다.

“울지를 말아라. 너희가 모두 다 내 제장 죽은 원귀가 나를
원망하여서 우는구나.”

(라) [아니리] ㉢ 탄식하던 끝에 ‘히히히, 해해해’ 대소하니 정욱
이 기가 막혀,

“여보시오 승상님, 근근도생 창황 중에 슬픈 신세 생각지
않고 무슨 일로 웃나이까?”

조조 대답하되,

“내 웃는 게 다름 아니라 주유(周瑜)*는 피가 없고 공명
(孔明)*은 슬기 없음을 생각하여 웃노라.”

(마) [엇모리] 이 말이 지듯 마듯 오림산곡 양편에서 고성 화광
이 충천, 한 장수가 나온다. ㉣ 얼굴은 형산백옥 같고 눈은
소상강 물결이라. 이리 허리 곰의 팔, 녹포염신 갑옷, 팔척
장창 비껴들고 당당위풍 일 포성, 큰 소리로 호령하되,

“네 이놈 조조야. 상산 명장 조자룡(趙子龍)을 아는다 모르
는다? 조조는 단지 말고 창 받으라!”

말 놓아 달려들어 등에 얼른 서를 쳐, 남에서 얼른 북을
쳐, 생문으로 내리닫아 사문에 와 번뜻! 장졸의 머리가 추풍
낙엽이라. 예 와서 번뜻하면 저 가 땡기령 베고, 저 와서
번뜻하면 예 와 땡기령 베고, ㉤ 백송골이 펄 차듯, 두꺼비
파리 차듯, 은장도 칼 베듯, 여름날 번개 치듯 흥행행 쳐들
어갈 제, 피 흘러 강물 되고 주검이 여산이라.

- 작자 미상, 「적벽가(赤壁歌)」 -

* 주유: 조조의 위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던 오나라의 대장군.

* 공명: 제갈량(諸葛亮). 위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던 촉나라의 군
사(軍師).

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점]

- ① 봄빛이 완전한 산속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 ② 군사를 다 잃은 조조가 정욱과 단둘이 도망가고 있다.
- ③ 조조는 숲에 숨어들어 적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이다.
- ④ 조조는 큰 낭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세를 버리지 않고
있다.
- ⑤ 조조는 전쟁 중에 죽은 장졸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나)와 (마)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서는 (마)에 비해 상황이 희극적으로 연출되어 골계
미가 살아나고 있다.
- ② (마)는 (나)에 비해 작중 상황이 급박하여 정서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 ③ (나)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데 비하여, (마)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된다.
- ④ (나)는 주로 인물 간의 대화에 의해, (마)는 주로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 사건이 진행된다.
- ⑤ (나)가 산문적 표현에 가까운 데 비하여, (마)는 노래로 부르
기에 적합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주변인물을 통해 중심인물의 부정적 면모를 드러낸다.
- ② ㉡: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 수용자의 공감을 유도한다.
- ③ ㉢: 반어적 표현을 통해 상황의 반전을 암시한다.
- ④ ㉣: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특성을 묘사한다.
- ⑤ ㉤: 비유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과 생동감을 살려낸다.

4. <보기>에 비추어서 (다)의 ‘새타령’을 해석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새타령’은 「적벽가」에서도 절창으로 꼽힌다. 새 모습 묘사와 새 소리 표현에 생동감이 넘쳐, 이름난 광대가 이 대목을 부르면 새가 날아들 정도였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새의 울음을 표현한 말소리들이 서사적 상황과 절묘하게 연결되면서 전쟁 상황에 얽힌 의미를 표출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도탄에 싸인 군사, 고향 이별이 몇 해런고’에 이어지는 ‘귀촉도 귀촉도’라는 울음소리는 ‘귀촉’의 뜻인 ‘고국으로 돌아감’과 연결되어 고향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군사들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① 흥년새가 ‘소텡 소텡’ 하고 우는 것은 ‘소댕(솔뚜껍)’이나 ‘솔이 텅 빈 것’과 연결되어, 식량 문제로 고생하는 군대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어.
- ② 삐죽새가 ‘입삐죽 입삐죽’ 하고 우는 것은 ‘삐죽대다’와 연결되어, 대군을 잃고 한심한 처지가 된 조조를 비웃는 의미를 담았다고 할 수 있겠네.
- ③ ‘피꼬리 수리루리루’라는 울음소리는 ‘피’라는 말과 연결되어, 도망갈 궁리를 짜내기에 분주한 조조를 희화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까마귀가 ‘고리각 까옥’ 하고 우는 것은 까마귀가 ‘효조(孝鳥)’라는 사실과 연결되어, 군사들이 부모를 그리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⑤ ‘쑥국 쑥쑥국’이라는 울음소리는 ‘쑥’의 약효와 연결되어, 병에 시달리는 군사들의 고통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군.

5.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마)에서 ‘조조’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범을 피하니 이리가 앞을 막는다.
- ②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 ③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④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⑤ 병 주고 약 준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8.06]

이때, 함경도 곡산 땅에 한 사람이 있으되, 성은 김(金)이요
명은 덕령(德齡)이라. 힘은 능히 삼천 근을 들고 신장은 구 척
이요, 검술과 육도삼략이 옛날 황석공의 도술을 당하는지라.
아깝도다. 이때는 부친의 초토(草土)* 중에 있고, 모부인을
섬겨 하루도 떠나지 아니하더니, 일일은 들으니 왜적이 백 리
안에 온다 하거늘 모부인에게 여쭙오되,

“국운이 불행하여 왜적이 산과 들에 가득 찻사오니, 소자가
비록 초토에 있사오나 지금은 국사가 망극하오니 신민의
도리로 어찌 편안하오리이까? 나아가 도적을 물리치고 즉
시 돌아오리이다.”

부인이 책망하여 왈,

“너는 어찌 무지한 말로 어미를 놀라게 하느냐? 공자(公子)
는 구 년 거상(居喪)이요, 군자(君子)는 육 년 거상이요,
대부(大夫)는 삼 년 거상이라. 네 어찌 무슨 지략으로 사정
에 어두운 말을 하느냐? 만일 내 말을 거역하면 모자지의
(母子之義)를 끊으리라.”

덕령이 다시 말을 못하고 마음을 억누르고 있더니, 수일 후
들으니 도적이 머지않아 들어온다 하거늘, 마음이 송구하여
슬하를 떠나 가등청정의 진에 자취도 없이 들어가 외쳐 왈,

“나는 조선 장수 김덕령이라. 왜적의 씨를 없이하려니와
천운이 불행하여 내 몸이 상중에 있기로 너희를 이제까지
살렸도다. 무지한 왜적은 천위를 모르고 외람되이 조선을
침범하였으니 목숨을 아끼거든 바삐 살아 가라. 너의 명이
내 수중에 달렸으니 빨리 돌아가라. 만일 내 말을 믿지 못하
거든 내일 오시(午時)에 올 것이니, 그때를 기다려 재주를
구경하되 백지를 오려 너희 군졸 머리 위에 날날이 붙이고
기다리라.”

하고, 마침 간데없거늘, 가등청정이 대로하여 ㉠ 수문장을 베어 장대에 달고 왈,

“문을 어찌 지켜 요망한 놈이 임의로 출입하는가.”

하고, 군중에 전령하여,

“백지를 오려 머리 위에 날날이 붙여라. 내일 오시에 요망
한 놈이 반드시 올 것이니, 동정을 살피되 일시에 함께 총
과 활을 쏘아라.”

하고, 이튿날 오시가 되도록 종적이 없더니, 오시 후에 북쪽으
로부터 일점 흑운이 일어나며 광풍이 대작하고 시석(矢石)*이
날리며 큰 나무가 부러지며 천지가 뒤넘는 듯하더니 공중
에서 한 소년이 상복을 입은 채 포선(布扇)*을 들고 오른손으
로 억만 군중 백화 발이 된 백지를 거두어 쥐고 천둥같이 호
령 왈,

“너희는 내 재주를 보라. 내 몸이 상중이 아니면 너희 장졸
의 머리를 이 종이같이 경각에 거두고자 하나니, 너희가 목
숨을 아끼거든 빨리 퇴병하라. 만일 나의 말을 업신여기면
내 포선으로 너희를 씨도 없이하리라.”

하고 간데없거늘, 가등청정이 간담이 서늘하여 차탄 왈,

“내 팔 년 동안 도술을 배워 조선에 나왔으되 저러한 재주

는 처음이라. 천신 같도다.”

하고, 진을 풀어 조섭의 진과 합하고자 하더라.

- 작자 미상, 「임진록」 -

* 초토: 거적자리와 흙 베개라는 뜻으로, 상중에 있음을 이르는 말.

* 시석: 전쟁에 쓰던 화살과 돌.

* 포선: 상주가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는 부채.

1.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김덕령은 종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신이한 능력을 드러냈다.
- ② 어머니는 김덕령에게 신민의 도리보다 아들의 도리를 요구했다.
- ③ 상복을 입고 공중에서 나타난 소년은 김덕령이 둔갑한 인물이다.
- ④ 김덕령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모두 중시했다.
- ⑤ 가등청정은 김덕령의 능력을 두려워하여 군사들의 머리에 백지를 붙이게 했다.

2. 위 글과 <보기>는 같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위 글과 <보기>의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남원부 사람으로 전에 참봉을 지냈던 변사정이 의병을
모집하여 영남으로 가려고 할 때, 최척은 활쏘기와 말 타기
를 잘했기 때문에 의병에 뽑혀서 동행하게 되었다. 최척은
진중에 있으면서 옥영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몸이 아프게
되었다. 혼례를 치르기로 약속한 날이 되어 소장(訴狀)을
올려 휴가를 청하자, 의병장이 화를 내며 말했다.

“지금 이 어느 때인데 감히 혼사에 대해 말하느냐? 임금
께서도 난리를 당하여 피난을 가서 풀숲을 방황하고 계
시니, 이러한 때 신하 된 자는 마땅히 창을 베고 잘 겨를
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의병장은 이렇게 꾸짖으며 끝내 최척의 귀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옥영도 최척이 돌아오지 않자 혼례를 치르지 못하고
그날을 헛되게 보낼 수밖에 없었다.

- ① 위 글은 <보기>에 비해 통쾌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 ② 위 글은 <보기>에 비해 주인공이 능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 ③ <보기>는 위 글에 비해 사실성이 두드러진다.
- ④ <보기>는 위 글에 비해 서술자의 개입이 두드러진다.
- ⑤ <보기>는 위 글에 비해 개인의 애환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3. ‘김덕령’에 대해 정리한 다음의 역사 기록을 참조하여, 위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출생 배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도 광주 사람이다. ○ 미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
| 인물 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개가 있고 자부심이 있었다. ○ 다른 사람에 비해 용맹과 힘이 뛰어났다. |
| 주요 행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 김덕홍이 의병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하자 세상일에 뜻을 두지 않았다. ○ 모친상을 치른 후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 매부 김응희가 여러 번 왜적을 토벌하라고 권유했으나 주저하였다. ○ 최담령 등 수십 명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 왜장 가등청정이 경계를 강화할 정도로 뛰어난 의병 활동을 하였다. |

- ① 출생지를 달리 설정한 것은 독자층을 널리 확보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② 인물 특성을 과장한 것은 김덕령의 영웅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③ 주요 행적을 단순화한 것은 핵심적인 사건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겠군.
- ④ 상중에 출전한 것으로 바꾼 것은 김덕령의 충성심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⑤ 김덕령이 가등청정을 위협한 것으로 설정한 것은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의도이겠군.

4. 문맥으로 보아 ㉠과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1점]

- ① 일벌백계(一罰百戒) ② 유구무언(有口無言)
- ③ 청천벽력(靑天霹靂) ④ 토사구팽(兔死狗烹)
- ⑤ 비분강개(悲憤慷慨)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3.06]

이때 동래 부사 송정이 사신 온다는 공문을 보고 웃으며 왈,
“조정에 사람이 무수하거든 어찌 구태여 중을 보내리오. 이는 더욱 패망할 징조라.”

하더니 하인이 보하되,

“사명당 행차 온다 하오니 어찌 접대하리이까.”

송정이 분부 왈,

“상례로 대접하라. 제 비록 부처라 한들 어찌 곧이들으리오.”

하고, 심상히 여기거늘, 하인 분부를 듣고 나와 부사의 말을 이르고 왈,

“지방관의 도리에 봉명 사신(奉命使臣)*을 가껴이 여기거니와 반드시 화를 면치 못하리로다.”

하더니 자연 삼일 만에 이르렀는지라. 대접하는 도리와 수용하는 일이 가장 소홀하거든 사명당이 대로하여 객사에 좌기하고 무사에게 명하여 송정을 잡아 계하에 꿇게 하고 이르되,

“네 벼슬이 비록 옥당이나 지방관이요, 내 비록 중이나 일국 대사마대장군이요 봉명 사신이어늘 네 한갓 벼슬만 믿고 국명을 심상히 여겨 방자함이 태심하니 내어 베어 국법을 엄히 하라.”

하고 즉시 나라에 장문하여 선참후계(先斬後啓)*하고 인하여 길을 떠날 새 순풍을 만나 행선하니라.

[중략 줄거리] 사명당이 일본에 도착하자 왜왕은 사명당의 신통력을 여러 가지로 시험한다.

채만홍이 주왈,

“신의 소견은 철마를 만들어 불같이 달구고 사명당을 태우면 비록 부처라도 능히 살지 못하리이다.”

왜왕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즉시 풀무를 놓고 철마를 지어 만든 후 백탄을 띄같이 쌓고 철마를 그 위에 놓아 불같이 달군 후에 사명당을 청하여 가로되,

“저 말을 능히 타면 부처 법력을 가히 알리라.”

사명당이 심중에 망극하여 납관을 쓰고 조선 향산을 향하여 사배하더니 문득 서녘에서 오색구름이 일어나며 천지가 희미하거든 사명당이 마지못하여 정히 철마를 타려 하더니 홀연 벽력 소리 진동하며 천지 뒤눕는 듯하고 태풍이 진작하여 모래 날리고 돌이 달음질하고 비 바가지로 담아 붓듯이 와 사람이 지척을 분변치 못하는지라. 경각 사이에 성중에 물이 붙어 넘쳐 바다가 되고 성 외의 백성들이 물에 빠져 죽는 자 수를 아지 못하되 사명당 있는 곳은 비 한 방울이 아니 젖는지라. 왜왕이 경황실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천위를 안정하리오.”

예부상서 한자경이 주왈,

“처음에 신의 말씀을 들었사오면 어찌 오늘날 환이 있으리이까. 방금 사세를 생각하옵건대 조선에 항복하여 백성을 평안히 함만 같지 못하나이다.”

㉠ 왜왕이 자경의 말을 듣고 마지못하여 항서를 써 보내니 사명당이 높이 좌하고 삼해 용왕을 호령하더니 문득 보하되,
“네 나라 항복받기는 내 손아귀에 있거니와 왜왕의 머리를

베어 상에 받쳐 들이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일본을 떨하여 산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네 돌아가 왜왕에게 자세히 이르라.”

사자 돌아가 전말을 고하니 왜왕이 이 말을 듣고 머리를 숙이고 능히 할 말을 못하거든 관백이 주왈,

“전하는 모름지기 옥체를 진중하소서.”

왕이 정신을 차려 살펴보니 남은 백성이 살기를 도모하여 사면팔방으로 헤어져 우는 소리, 유월 염천에 큰비 오고 방초 중의 왕머구리 소리 같은지라. 왕이 이 광경을 보니 만신이 떨려 능히 진정치 못하거든 관백이 다시 가지고 들어가 사명당께 드리니 사명당이 항서를 보고 대책 왈,

“네 왕이 항복할진대 일찍이 항서를 드릴 것이어늘 어찌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하고 용왕을 불러 이르되,

“그대는 얼굴을 드러내어 일본 사람을 보게 하라.”

용왕이 공중에서 이 말을 듣고 사람의 머리를 베어 들고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고 운무 중에 몸을 드러내니 사명당이 관백에게 왈,

“네 빨리 돌아가 왜왕에게 일러 용의 거동을 보게 하라.”

관백이 돌아가 그대로 고하니 왜왕이 창황 중 눈을 들어 하늘을 치밀어 보니 중천에 삼룡이 구름을 피우고 사람의 머리를 베어 들었으니 형세 산악 같고 고기비늘이 어지러이 번쩍여 일광을 바수고 소리 벽력같이 천지진동하는지라. 이진걸이 주왈,

“본국 보화를 다 바치고 향표(降表)를 올려 애걸하소서.”

왕이 즉시 이진걸을 명하여 향표를 올린대 사명당이 대로 왈,

“네 나라 임금의 머리를 베어 들이라 한대 마침내 거역하니 일본을 무찔러 혈천을 만들리라.”

하고 인하여 육환장을 들어 공중을 향하여 축수하더니 문득 뇌성벽력이 진동하여 산악이 무너지는 듯 천지 컴컴한지라. 왜왕이 이때를 당하여 삼혼(三魂)이 흩어지며 칠백(七魄)이 달아나니라.

- 작자 미상, 「임진록」 -

* 봉명 사신: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외국으로 가던 사신.

* 선참후계: 군율을 어긴 자를 먼저 처형한 뒤에 임금에게 아뢰던 일.

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
- ②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과장된 비유를 활용하여 상황의 급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활용하여 비현실적 장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공간이 국내에서 국외로 바뀌면서 서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 '사명당'과 '송정' 사이의 갈등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제삼자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긴 오해에서 비롯된다.
- ② 외교적 문제의 핵심 사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 ③ 사대부의 사회적 소임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에서 비롯된다.
- ④ 사명당의 종교적 신념과 송정의 윤리적 신념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 ⑤ 사명당은 명분과 직위를, 송정은 신분을 중시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임진록」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역사 군담 소설로서, 역사에 허구를 더해 전란으로 인해 상처받은 민족적 자존감을 보상하면서 전란의 피해와 책임에 대한 민중들의 생각과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을 통해 조선인의 우월성을 드러내거나 때로는 역사적 근거가 부족한 가공의 사건을 형상화하기도 했다.

- ① 사명당의 복수를 통해, 국토가 유린되는 과정에서 받은 민중들의 고통을 보상하고 있군.
- ② 초인적 능력을 지닌 사명당의 모습을 부각하여, 왜에 대한 조선인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부사에 대한 하인의 비판적인 발언을 통해, 전란 후 지배층에 대한 민중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군.
- ④ 왜왕이 항복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어, 전란으로 훼손된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을 꾀하고 있군.
- ⑤ 양반 대신 승려 사명당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전란 후 종교를 중심으로 상하층이 단결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군.

4. ㉠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울며 겨자 먹기
- ② 옆구리 찔러 절 받기
- ③ 울려는 아이 뺨 치기
- ④ 미련한 사람 곰 잡기
- ⑤ 뱀이 용 되어 큰소리하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3.수능]

막 씨 졸연 복통이 있어 마치 태중에 아이 놀 듯하여 점점 불러 오거늘 심히 괴이히 여겨 행여 남이 알까 근심하더니, 십 삭에 미치는 산점*이 있어 ㉠ 초막(草幕)에 엎드렸더니, 해산하고 돌아보니 아이는 아니요, 금방울 같은 것이 금광이 찬란하거늘, 막 씨 대경하여 괴이히 여기며 손으로 누르되 터지지 아니하고 돌로 깨쳐도 깨어지지 아니하거늘, 이에 집어다가 멀리 버리고 돌아보니 금방울이 굴러 따라오는지라. 더욱 의심하여 집어다가 깊은 물에 들이치고 돌아오니 금방울이 물 위에 가볍게 떠다니다가 막 씨의 가는 양을 보고 여전히 굴러 따라오는지라.

막 씨 헤아리되,

‘나의 팔자 기구하여 이 같은 괴물을 만나 타일에 이로 인하여 반드시 큰 화근이 되리로다.’

하고 불 땀 때에 아궁이에 들이쳤더니, 닷새 후에 헤쳐 본즉 금방울이 뛰어나오되 상하기는커녕 새로이 금빛이 더욱 짙어지고 ㉡ 향내 진동하거늘, 막 씨 하릴없어 두고 보니 밤이면 품속에 들어 자고 낮이면 굴러다니며 혹 칩때 나는 새도 잡고 나무에 올라 과실도 따 가지고 와 앞에 놓으니, 막 씨 자세히 본즉 속에서 실 같은 것이 온갖 것을 묻혀 오되 그 털이 출입이 있어 평시에는 반반하고 뵈지 아니하거늘, 추위를 당하여도 방울이 굴러 품에 들면 조금도 춥지 아니하여 엄동설한에 한데서 남의 방아를 찼어 주고 저녁에 초막으로 돌아오니 방울이 굴러 막에서 내달아 반기는 듯 뛰놀거늘 막 씨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막 속으로 들어가니 그 속이 놀랍게 더우며 방울이 빛을 내어 밝기 낮 같거늘, 막 씨 기이히 여겨 남이 알까 저어하여 낮이면 막 속에 두고 밤이면 품속에 품고 자더니, 방울이 점점 자라매 산에 오르기를 평지같이 다니며 진 대와 마른 데 없이 굴러다니되 몸에 흠이 묻지 아니하더라.

[중략 줄거리] 금방울을 탐내다 뜻을 이루지 못한 자가 금방울이 요괴롭다고 비방한다. 이에 고을 수령인 장 공은 막 씨를 잡아서 금방울을 제압하고자 하나, 오히려 금방울이神通력을 발휘하여 장 공은 먹고 자는 것조차 여의치 않게 된다.

부인이 막 씨 놓음을 권하니 장 공이 깨닫고 즉시 막 씨를 놓으니 그날부터 침식이 여전한지라. 장 공이 막 씨의 효행을 듣고 크게 뉘우쳐 초막을 헐고 그 터에 크게 집을 지으며 ㉢ 정문(旌門)*을 세워 잡인을 금하고 달마다 월음*을 주어 일생을 편안케 하니라.

차설. 장 공이 뇌양에 온 후로 몸이 평안하나 주야 해룡을 생각하고 부인으로 더불어 슬퍼하더니, 부인이 이로 인하여 침식에 위독하여 백약이 무효하매 공이 주야 병축을 떠나지 아니하더니, 일일은 부인이 공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 왈, “침의 팔자 기박하여 한 날 자식을 난중(亂中)에 잃고 지금 보전함은 요행 생전에 만나 볼까 하였더니 십여 년 존망을 모르매 병입골수하여 명이 오늘뿐이라. ㉣ 구천에 돌아간들 어찌 눈을 감으리오? 바라건대 공은 길이 보중 하소서.”

[A] 하고 인하여 명이 진하니, 장 공이 낮을 대고 애통하여 자로 기절하매 좌우가 붙들어 구호하더니, 밖에서 방울이 굴러 부인 시신 앞으로 들어가거늘, 모두 보니 풀잎 같은 것을 물어다 놓고 가는지라. 급히 집어 보니 나뭇잎 같은 것이로되 가늘게 찢으되 ‘보은초(報恩草)’라 하였거늘, 공이 대희 왈, “이는 막 씨가 보은한 것이로다.”

하고, 그 풀을 부인 입에 넣으니, 식경 후에 부인이 몸을 운동하여 돌아눕거늘, 좌우가 울음을 그치고 수족을 주무르니 그제야 부인이 숨을 길게 쉬는지라. 공이 병을 물은대, 부인이 자고 나매 정신이 썩썩하다고 대답하니, 공이 대열하여 방울의 수말*을 다하고 못내 기뻐하더라.

그 후로 부인의 병세 과연 평복되니 부인이 친히 막 씨의 ㉤ 집에 가 재생지은(再生之恩)을 만만사레하고 맺어 형제 되매, 그 후로는 방울이 굴러 부인 앞에 오거늘 장 공 부부 사랑하여 손에 놓지 아니하니, 방울이 아는 듯 이리 안기며 저리 품기어 영민함이 사람 뜻대로 하는지라, 이름을 ㉥ ‘금령(金鈴)’이라 했다.

- 작자 미상, 「금방울전」 -

* 산점: 해산의 기미.

* 정문: 충신·효자·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해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

* 월음: 매달 주는 돈이나 물품.

* 수말: 일의 처음부터 끝.

1.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요약적 서술과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통해 불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 ⑤ 부정적 인물에 대한 비판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막 씨의 당시 처지를 보여 주는 공간이다.
- ② ㉡: 금방울의 신이한 면모를 보여 준다.
- ③ ㉢: 막 씨의 효행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상징한다.
- ④ ㉣: 막 씨와 장 공 부인의 갈등이 심화되는 공간이다.
- ⑤ ㉥: 금방울이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보여 준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금방울전」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태어난 주인공이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한 후, 방울을 깨고 사람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금방울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로부터 시련을 겪지만, 방울의 모습을 한 채로 자신의 의지를 지니고 다양한 능력을 발휘한다. 또 주인공이면서도 타인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모습을 강하게 지닌다.

- ① 막 씨가 금방울을 ‘손으로 누르’고 ‘돌로 깨’는 것은 금방울의 변신을 돕기 위한 행동이다.
- ② 막 씨가 금방울을 ‘깊은 물’과 ‘아궁이’에 들이치는 행위는 어머니에 의한 금방울의 시련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③ 막 씨가 금방울을 거둬 버려도 ‘여전히 굴러 따라오는’ 것은 금방울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 ④ 금방울이 ‘나는 새도 잡고’ ‘산에 오르기를 평지같이 다니’는 것 등은 금방울의 다양한 능력을 보여 준 것이다.
- ⑤ 금방울이 ‘보은초’를 구해 와 장 공의 부인을 살려 내는 것은 조력자로서의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다.

4.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② 구사일생(九死一生)
- ③ 사필귀정(事必歸正) ④ 순망치한(唇亡齒寒)
- ⑤ 연목구어(緣木求魚)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09 A]

이혈룡이 어이가 없어서,
 “오냐, 내가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다가 통지를 할 수 없어 한 달이나 지나서 노자도 떨어지고 기갈을 견디지 못하여 문전걸식하고 다니다가 오늘에야 이 자리에서 너를 보니 죽어도 한이 없다. 나는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는데 어찌 이같이 괘시한단 말이나? ㉠ 오랜 친구도 쓸데없고 결의형제도 쓸데없구나. 내가 네 처지라면 이같이는 괘시하지 않을 거다. 다만 돈백이라도 준다면 모친과 처자를 먹여 살리겠다.”
 하면서 대성통곡하였다. 이혈룡은 다시 울먹이는 말로,
 “이 몸쓸 김진희야, 내가 지금 훈전의 노자가 없으니 멀고 먼 서울 길을 어찌 돌아가랴.”
 하니, 김 감사는 노발대발,
 “이 미친놈 봤나.”
 호통을 치면서 사공을 불러 엄명하였다.
 “이놈을 배에 싣고 가서 강물 한가운데 던져라.”
 이에 사공들이 영을 받고 물러 나와 이혈룡을 묶어서 배에 실을 때에 연회장에 있던 옥단춘이 던지시 보니, 비록 의복은 남루하나 얼굴이 비범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감사에게 거짓말하여 고하기를,
 “소녀 지금 오한이 일어나며 온몸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니 감사가,
 “그러면 물러가서 치료하라.”
 하였다. 옥단춘이 물러 나와서 사공을 급히 불렀다.
 “저기 가는 저 사공들, 잠깐 기다리시오.”
 하니 사공들이 머무르거늘 옥단춘이 하는 말이,
 “내 이 양반의 몸값을 후하게 줄 것이니 이 양반을 죽이지 말고 죽인 듯이 모래를 덮어서 숨겨 두고 오시오.”
 하였다.
 옥단춘의 부탁을 받은 사공들이,
 ㉡ “아무리 사또 영이 지중하지만 어찌 우리 손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겠는가.”
 하고 사공들이 이혈룡을 배에 싣고 만경창과 깊은 물에 동기동실 떠나갔다. 혈룡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속절없이 죽는 줄로만 알고 하늘을 우러러 방성통곡하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이혈룡은 옥단춘의 기지로 목숨을 구한 후 그녀의 집에 머물게 된다. 이후 이혈룡은 과거 시험을 치르라는 옥단춘의 권유로 서울로 돌아와 가족을 만나고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한다.

그러자 모친과 부인은 그 사실을 듣고 혈룡의 죽을 고생을 생각하고 서로 슬픈 눈물을 흘렸다. 동시에 옥단춘이 혈룡을 구제한 전후 사실을 듣고, 그 은혜를 서로 치사하여 마지않았다.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들은 그동안의 회포를 서로 다 이야기하여 풀고 다시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 모친도 죽었던 자식 다시 본 듯, 부인도 잃었던 낭군 다시 본 듯 잠시도 서로 떠날 마음이 없이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이때에 과거 날이 되었으므로 혈룡이 모친의 슬하를 떠나서

대궐 안 과거장에 들어가니 팔도에서 글 잘한다는 선비들이 구름같이 모여 있었다.

이윽고 글제를 살펴보니 ㉣ 천하태평춘대(天下泰平春)이라 걸려 있었다. ㉤ 글을 지을 생각을 가다듬은 후에 용벼루에 먹을 갈아 조맹부의 필체로 단숨에 일필휘지하여 바쳤는데, 전하께서 보시고는 글자마다 비점(批點)이요 글귀마다 관주(貫珠)를 치는 것이었다.

전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신묘하다. 이 글씨와 글 지은 사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하시고, 알성시(謁聖試) ㉥ 장원급제(狀元及第)로 한림학사를 제수하시고, 곧 어전입시(御前入侍)하라는 분부를 내리셨다. 이한림이 입시하여 천은을 사례하자 전하께서 칭찬하시기를,

“충신의 자식은 충신이요, 소인의 자식은 소인이다. 용모를 살펴보니 용안호두(龍顏虎頭)요, 목목지인(穆穆之人)이로다.”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한림은 어전에 엎드려,

㉦ “소신과 같이 무재무능한 자를 이처럼 충신지자충신(忠臣之子忠臣)이라 하시오니 황공무지하오며, 또한 한림을 제수 하시니 더욱 황공하옵니다.”

하고, 수없이 치사하고 물러 나와 집에 큰 잔치를 베풀고 향당과 친지를 청하여 경사를 축하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

‘평양 감사 김진희의 불의무도한 소행을 나만 당하였으랴.

무고한 백성들은 무슨 죄로 한 사람의 ㉧ 학정(學政)으로 평양 일도에서 어육(魚肉)이 된다는 말인가. 곰곰 생각하니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마땅히 성상께 여쭙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하고, 전후 사실을 일일이 밀록(密錄)하여 전하께 바쳤다.

전하께서는 그 ㉨ 밀록(密錄)을 받아 보시고 수없이 탄식한 뒤에

㉩ 봉서(封書) 삼장을 내리셨다. 또 친히 하교하시기를,

“첫 봉서는 새문 밖에 가서 뜯어보고, 둘째 봉서는 평양에 가서 뜯어보고, 셋째 봉서는 그 후에 뜯어보라.”

하시고, 조심하여 다녀오라 하셨다. 이한림이 사은숙배하고 바로 나와서 모친과 부인에게 하직하였다. 새문 밖에 나가서 첫째 봉서를 뜯어보니, ‘평안도 암행어사 이혈룡’이라는 사령장과 마패가 들어 있었다.

- 작자 미상, 「옥단춘전」 -

1. 윗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반복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을 드러내고, 역지사지를 가정하여 상대방을 질책하고 있다.
- ② ㉡: 옥단춘의 회유로 ‘사또 영’을 따르지 않기로 한 사공들의 생각이 설의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③ ㉢: 이혈룡과 재회한 기쁨을 모친과 부인 각자의 입장에 어울리는 비유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 ④ ㉣: 이혈룡의 글 짓는 과정을 행동의 순차적 나열로 보여주고, 타인의 평가를 통해 이혈룡의 재능이 확인되고 있다.
- ⑤ ㉤: 이혈룡은 겸양의 어조를 통해 상대방이 내린 지위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2. 밑글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이혈룡은 ㉠라는 과제에 탁월한 답안을 제출하여 임금으로부터 ㉡에 합당한 인재로 인정받았다.
- ② ㉢는 이혈룡이 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뜻하고, 임금에게 ㉣를 올릴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③ ㉣는 이혈룡이 평양에서 겪었던 일을 반어적으로 표현하며 ㉠가 구현되는 것을 방해한다.
- ④ ㉣는 ㉢를 계기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가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 ⑤ ㉣는 임금이 이혈룡에게 ㉢를 바로잡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보기>를 참조하여 밑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옥단춘전」에서 옥단춘은 인물의 비범함을 알아보는 지인지감(知人之鑑)의 소유자이자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에 빠진 인물을 구해 내는 적극적인 조력자로 그려진다. 그녀는 자신의 조력을 통해 대상 인물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고, 애정의 대상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인물이다.

- ① 옥단춘이 오한을 핑계로 김 감사의 허락을 받은 후 연회장을 빠져나온 것에서 그녀의 기지를 엿볼 수 있군.
- ② 옥단춘이 이혈룡을 구해 줄 수 있는 인물로 김 감사를 선택한 것에서 여성으로서의 주체적 판단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군.
- ③ 옥단춘이 김 감사에게 팔시받던 남루한 행색의 이혈룡이 비범한 인물임을 발견한 데서 그녀의 지인지감을 엿볼 수 있군.
- ④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했던 이혈룡을 구해 준 옥단춘의 은혜에 감사한 것에서 조력자인 옥단춘의 역할을 인정한 것임을 알 수 있군.
- ⑤ 옥단춘이 사공들에게 이혈룡의 몸값을 후하게 제시하고 구체적 방안을 알려 준 것에서 그녀의 적극적인 조력 의지를 엿볼 수 있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06]

[앞부분 줄거리] 옹고집은 성격이 고약한 부자이다. 어느 날 옹고집 앞에 가짜 옹고집이 나타나, 서로가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한다.

두 옹고집이 송사 가는 제, 읍내를 들어가니 짚옹고집 거동 보소. 주저 없이 제가 앞에 가며 읍의 촌가인 하나와 만나 보면 깜짝 반겨 두 손을 잡고, “나는 가변을 송사하러 가는지라. 자네와 나와 아무 연분에 서로 알아 죽마고우로 지냈으니 나를 몰라볼쏘냐.”

또 하나를 보면, “자네 내게서 아무 연분에 돈 오십 냥을 취하여 갔으니 이참에 못 주겠느냐. 노잣돈 보태 쓰게 하라.”

또 하나 보면, “자네 쥐골평 논 두 섬지기 이때까지 소작할 제, 거년 선자(先資)* 스물닷 말을 어찌 아니 보내는가.”

이처럼 하니 참옹고집이 짚옹고집을 본즉 낱낱이 내 소견대로 내가 할 말을 제가 먼저 하니 기가 질려 뒤에 오며,

[A] 실성한 사람같이, 아는 사람도 오히려 짚옹고집같이도 모르는 지라.

짚옹고집이 노변에서 지나가는 사람 데리고 하는 말이, “가운이 불길하여 어떠한 놈이 왔으되 용모 나와 비슷해 제가 내라 하고 자칭 옹고집이라 하기로, 억울한 분을 견디지 못하여 일체 구별로 송사하러 가는지라. 뒤에 오는 사람이 기네. 자네들도 대소간 눈이 있거든 혹 흑백을 가릴쏘냐.”

참옹고집이 뒤에 오면서 기가 막히고 얼척도 없어 말도 못하고 울음 울 제, 행인들이 이어 보고 하는 말이, “누가 알아보리오. 뉘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상동이란 말밖에 또 하리오.”

(중략)

짚옹고집 반만 웃고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내정으로 들어가니 처자 권속이 내달아 잡고 들어가니, “하늘도 무심치 아니하기로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

송사를 이긴 내력을 말하니 처자 권속이며 상하 노복 등이 참옹고집으로 알고, 마누라는, “**㉠ 우리 서방님이 그런 고생이 또 있을까.**”

못 아들 나서며, “그런 자식에게 아버지가 큰 봉채를 보았다.” 노복 중이며 마을 사람들이 다 칭찬하거늘, 짚옹고집이, “내가 혈혈단신으로 자수성가하였기로 전곡을 과연 아낄 줄만 알았더니 내빈 왕객 접대 상과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더니 인심부득 절로 되어 이런 재변이 난 듯싶으니, 사람 되고 개과천선 못할쏘냐. 오늘부터 재물과 곡식을 흠어 활인구제(活人救濟)하리라.”

전곡을 흠어 **사망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단 말이 낭자하니 팔도 거지들과 각 절 유결승들이 구름 모이듯 모여드니 **백 냥 돈 천 냥 돈을 흠어** 주니 옹고집은 인심 좋단 말이 낭자하더라.

하루는 주효를 낭자케 장만하고 원근에 모모한 친구며 사방 사람을 청좌하여 대연을 배설할 제, 이때의 참옹고집 **전전결식**

하다가 맹랑춘 옹고집 활인구제한단 말 듣고 분심으로 하는 말이,

“**㉡ 남의 재물 갖고 제 마음대로 쓰는 놈은 어떤 놈의 팔자 인고. 찾아가서 내 집 망중 보고 죽자.**”

하고 죽장망혜로 찾아갈 제, **㉢ 짚옹고집 도술 보고 근처에 참 옹고집 온 줄 알고 사환을 분부**하되,

“오늘 큰 잔치에 음식도 낭자하고 걸인도 많을 제, 타일 천하게 다투던 거짓 옹가 놈이 배도 고프고 기한(飢寒)을 견디지 못하여 전전결식 다닐 제, 잔치 소문을 듣고 마을 근처에 왔으나 차마 못 들어오는가 싶으니 너희 등은 가서 데려오라. 일변 생각하면 되도 못할 일 하다가 **중장(重杖)만 맞았으니 불쌍하다.**”

사환 등이 영을 듣고 사방으로 나가 보니 **㉣ 과연 마을 뒷산에 앉아 잔치하는** 데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앉았거늘 사환들이 바로 가서 영겁결에 배례하고 문안하니, 슬프다. 참옹고집이 대성통곡 절로 난다.

사환들이 가자 하니, “**㉤ 갈 마음 전혀 없다.**”

여러 놈이 부축하여 들어가서 좌상에 앉히니 짚옹고집 일어서며 인사 후에,

“네 들어라. 형세 있어 좋다 하는 것이 활인구제하여 만 인적선이 으뜸이거늘 천여 석 거부로서 첫째로는 부모 박대하니 세상에 용납지 못할 놈이요, 둘째는 유결산승 옥보이니 불도가 어찌 허사리오. 우리 절 도승이 나를 보내어 묘하신 불법으로 가르쳐서 너의 죄목을 잡아 아주 죽여 세상에 영영 자취 없게 하여 세상 사람에게 모범이 되게 하라 하시거늘 너를 다시 세상에 내어 보내기는 나의 어진 용심으로 살린 것이니, 이만해도 후생에게 너 같은 행실을 징계한 사례가 될 듯싶으니 이후는 아무쪼록 개과하라.”

[B] 하고, 좌상에 나았으며 문득 자빠지니 허수아비 찰벼 짚 묶음이라.

이로 좌상이 다 놀라 공고를 하고 옹고집이 이날부터 개과천선하여 세상에 전하여 일가친척이며 원근친고 사람에게 인심을 주장하니 옹고집의 인심을 만만세에 전하더라.

- 작자 미상, 「옹고집전」 -

* 선자: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드는 돈.

1.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송사 원인이 금전적 이해관계에 있음이 밝혀진다.
- ② 송사 결과에 대한 행인들의 상반된 예측이 제시된다.
- ③ 송사 가는 이의 답답한 심정이 서술자에 의해 드러난다.
- ④ 송사 가는 이들 간에 서로를 비방하는 대화가 이어진다.
- ⑤ 송사 가는 길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의 외양이 묘사된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마누라'는 집에 돌아온 이를 '참옹고집'으로 알고 있다.
- ② ㉡: '참옹고집'은 '짚옹고집'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 ③ ㉢: '짚옹고집'은 '참옹고집'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고 있다.
- ④ ㉣: '참옹고집'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서러워하고 있다.
- ⑤ ㉤: '참옹고집'은 '사환들'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옹고집전」은 주인공 '참옹고집'이 소외를 경험하도록 그와 똑같이 생긴 '짚옹고집'을 등장시켜 그를 대신하게 하는 독특한 인물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는 '참옹고집'으로 형상화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와도 연결된다. 부유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지 않고 외면하면 공동체로부터 소외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 ①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한 데에서, '참옹고집'이 송사 이전부터 가족에게 소외되어 온 정황이 '짚옹고집'을 통해 드러남을 알 수 있군.
- ②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다고 말한 데에서, 가난한 이들을 외면했던 '참옹고집'의 행적이 '짚옹고집'을 통해 언급됨을 알 수 있군.
- ③ '전곡을 흠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데에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해야 하는 '참옹고집'의 책무가 '짚옹고집'을 통해 이행됨을 알 수 있군.
- ④ '짚옹고집'이 '백 냥 돈 천 냥 돈을 흠어' 줄 수 있을 만큼 '참옹고집'의 재물이 많았다는 데에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을 연상시키는 '참옹고집'의 모습이 확인되는군.
- ⑤ '참옹고집'이 '짚옹고집'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전전걸식'하며 살아가는 데에서,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고통을 겪는 '참옹고집'의 처지가 확인되는군.

4. <보기>는 「옹고집전」이본의 일부이다. [B]와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참옹고집 듣기를 다하여 천방지방 도사 앞에 급히 나아가 할장배례하며 공손히 하는 말이, “이놈의 죄를 생각하면 천사(千死)라도 무석(無惜)이요 만사라도 무석이나 명명하신 도덕하에 제발 덕분 살려 주오. 당상의 늙은 모친 규중의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 원견지 하온 후 지하에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제발 덕분 살려 주옵소서.”

만단으로 애걸하니 도사 하는 말이, “천지간에 몸쓸 놈아. 인제도 팔십 당년 늙은 모친 냉돌방에 구박할까, 불도를 능멸할까. 너 같은 몸쓸 놈은 응당 죽일 것이로되 정상(情狀)이 불쌍하고 너의 처자 가여운 고로 놓아주니 돌아가 개과천선하라.”

부적을 써 주며 왈, “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네 집에 돌아가면 괴이한 일 있으리라.”

하고 홀연 간데없거늘 참옹고집 즐겨 돌아와서 제집 문전 다다르니 고루거각 높은 집에 청풍명월 맑은 경은 옛 놀던 풍경이라.

- ①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는 '나의 어진 용심'을, <보기>는 '정상이 불쌍'함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용서하는 이의 마음을 고려했고, <보기>에서는 용서받는 이의 처지까지도 고려하였군.
- ②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는 '이만해도 후생에게' '징계한 사례'가 됨을, <보기>는 '너의 처자 가여'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징계의 사회적 효용이, <보기>에서는 징계로 인한 가족의 피해가 고려되었군.
- ③ '참옹고집'의 악행으로 [B]는 '부모 박대'를, <보기>는 '모친' '구박'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참옹고집'의 비인륜적 행위가 징계의 사유에 포함되었군.
- ④ '참옹고집'에게 개과천선하라는 요청이 [B]와 <보기> 모두 인물의 발화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인물의 발화는 '참옹고집'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계기에 해당하는군.
- ⑤ '참옹고집'을 훈계하던 존재가 [B]에서는 '허수아비'로 변하고, <보기>에서는 '홀연'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신이한 사건이 벌어지는군.

* 확인 사항

- 문학 만담: 수특 연계 기출 - 고전산문 (평가원편)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 이어서, 「빠른 정답」이 제시되오니, 채점 후에 해설을 참고해 주세요.

| 〈문학 만담: 수특 연계 기출 - 고전산문 평가원편〉 | | | | |
|-------------------------------|-----|-----|-----|-----|
| 적벽가 | | | | |
| 1.④ | 2.③ | 3.③ | 4.④ | 5.① |
| 임진록(2008.06) | | | | |
| 1.⑤ | 2.④ | 3.① | 4.① | |
| 임진록(2013.06) | | | | |
| 1.② | 2.⑤ | 3.⑤ | 4.① | |
| 금방울전 | | | | |
| 1.② | 2.④ | 3.① | 4.① | |
| 옥단춘전 | | | | |
| 1.⑤ | 2.③ | 3.② | | |
| 옹고집전 | | | | |
| 1.③ | 2.③ | 3.① | 4.④ | |